더 복잡해진 대입 전형…간소화 정책 '헛구호'

2015년 유형 수 2988개…올보다 105개 늘어

전남대·조선대 등 지역 주요 대학도 다양해져

정부의 대입 간소화 정책이 '헛구호'에 그쳤다. 2015학년도 대입 전형 유형 수가 2988개로 전년도 2883개보다 오히려 105개 늘어나 더욱 복잡해졌다.

5일 이투스청솔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이트에 공시한 2015학년도 전국 215개 대학의 수시·정시 전형 유형과 전형명 수를 조사한 결과, 수시 2000개·정시 988개 등 총 2988개 유형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2883개(수시 1846개, 정시 1037개)보다 105개 늘어난 수치다. 대학별 평균 전형 수는 13.4개에 달했다.

수시모집 전형 유형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위주 등 4개, 정시는 수능, 실기 위주 2개 등 총 6개 이내로 한다는 교육부 방침을 무색하게 했다.

광주·전남지역 22개 대학들을 보면 올해 전형 유형이 216개(정시 157개, 수시 59개)로 전년도 246개(정시 165개, 수시 81개)보다 30개가 줄었다. 하지만 전남대·조선대·목포대·광주교대 등 지역 주요대학들은 늘어 체감 전형은 더 복잡해졌다.

전남대는 지난해 12개에서 13개로 수시 전형 유형이 1개 늘었고, 조선대는 전년보다 수시 3개, 정시 2개가 늘어 20개의 유형으로 뽑는다. 목포대도 수시 5개, 정시 3개가 늘어 전형 유형이 12개에서 20개로 다양해졌다. 광주교대는 정시는 3개에서 1개로 줄었지만, 수시에서 4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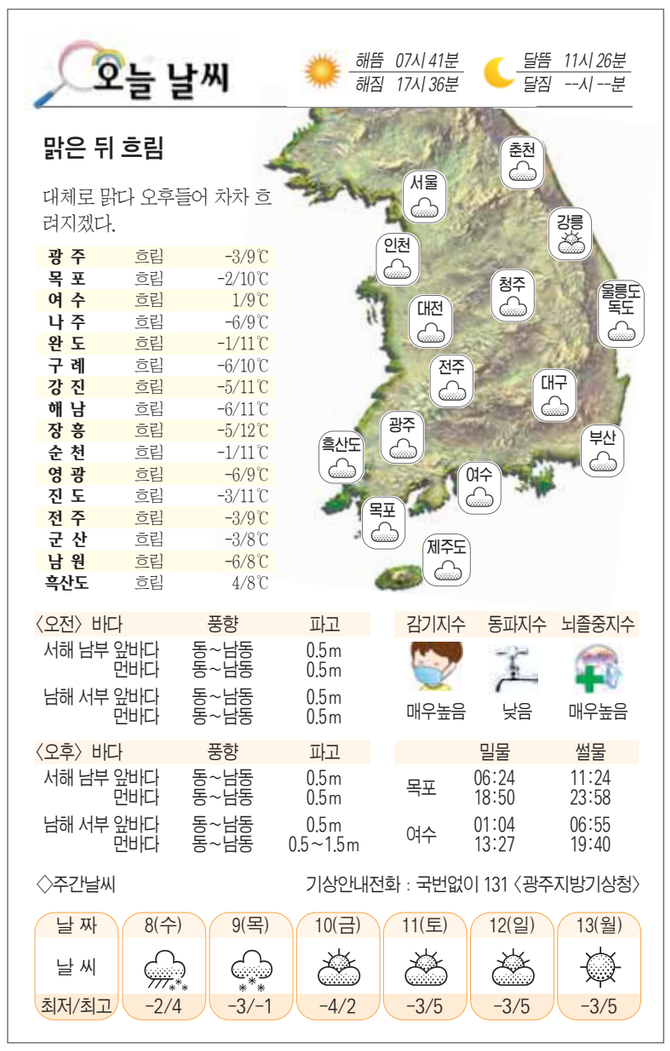
서울지역 주요대학도 전형 유형이 늘어났다.

서울대는 학생부(종합)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전형 유형 수는 일반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 기회균등선발특별전형(농어촌·저소득·특성화고) 등 5가지로 다양해졌다. 이로 인해 서울대 수시 전형 수는 전년도(3개)보다 2개 늘었다. 연세대와 고려대도 각각 19개와 14개로 전년도 5개, 4개보다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95개 대학이 전형 수가 증가했고, 81곳이 줄었으며, 39곳이 전년도와 같았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전형 수가 늘어난 것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에 따라 학생부 전형을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으로 나눠 선발하거나, 의대 신설로 전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화목보일러' 화재예방법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고

연통은 천장과 떨어지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목 보일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이 마련된다.

소방방재청은 6일 화목보일러 설치·안전 기준을 담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소방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화목 보일러는 저렴한 유지비 등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방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점을 반영, 화목 보일러 설치 과정에서 ▲콘크리트, 불에 타지 않는 흙과 모래 위에 설치할 것 ▲연통의 경우 보일러 몸통보다 2m 이상 높게, 천장과 0.6m 이상 떨어지게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또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지붕 등이 가연성일 경우 불연 재료로 0.1m 이상 피복하도록 했고 보일러 인근 소화기 비치 등 관리 방법 매뉴얼도 마련, 가정과 판매처 등에 배포키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아울러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새콤달콤' 하우스 딸기

광주 지산딸기 작목회원들이 6일 광주시 북구 지야동 비닐하우스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지산 딸기는 일반 딸기보다 당도가 높다. 2㎏짜리 한 박스당 가격은 3만2000원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독도 깊은 바다에서

신종 박테리아 발견

독도 바다에서 신종 박테리아〈사진〉가 발견됐다.

국립수산과학원 독도수산연구센터는 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 김병찬 박사팀과 함께 독도 깊은 바다에서 신종 박테리아를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신종 박테리아는 독도(서도) 주변 심해 900m 해역의 퇴적물에서 서식하는 종으로 확인됐다. 독도를 넣어 '선시우치니아 독도 (Sunxiuqinia dokdonensis sp. nov.)'로 명명됐다.

산소호흡을 주로 하지만 무산소 환경에서도 증식이 가능한 심해성 생리활성 물질과 생육조건을 가져 다른 선시우치니아 속의 2종과는 다르다.

/연합뉴스

검, 자진출두 철도노조 간부 8명 구속영장

광주·전남 2명 조사후 귀가…경찰, 집행부 1명 검거활동 강화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철회 이후 광주·전남에선 국장급 이상 간부 2명이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전남경찰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노조 집행부 1명에 대한 검거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6일 광주북부경찰과 순천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철도노조 호남본부 조직국장 김모(46)씨와 광주기관차승무지부장 이모(50)씨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김씨와 이씨 등 광주·전남지역 노조 집행부 간부 3명에 대해 3개월짜리 체포영장을 신청, 발부받았었다.

이날 현재까지 광주·전남에선 김씨 등 2명이 자진출석한 뒤 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나 나머지 1명은 도피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광주·전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선 노조 집행부는 모두 16명이다.

대검은 이들 중 8명에 대해선 파업을 철회하고 자진출석했더라도 최장기 불법 파업을 주도한 사안의 중대성은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불법 파업 가담 정도와 직위, 역할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6일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조 간부는 본부노조 및 서울지역간부 4명, 부산지역 2명, 대전지역 1명, 전북지역 1명 등이다.

경찰은 광주·전남지역 노조 간부 2명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한 뒤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추가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애초 경찰은 자진출석한 16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철도파업이 철회되면서 구속영장 신청 대상도 일부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두환 前대통령 조카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일천(57)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돼 기소중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대구 남부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부터 김모씨에게서 20여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지난해 8월 완주경찰서에 고소됐다.

당시 조씨는 자신이 대구에 거주한다며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 대구 남부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이후 조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반송됐고 경찰이 직접 집을 찾아본 결과 조씨가 대구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11월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조씨는 전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전점학씨의 아들로 1996년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다른 사기사건에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